

교회소식

- 예배 후에 5월 당회가 있습니다(2시 30분, 사무실).
- 7월 18일 주일은 교회 창립 22주년입니다. 각 선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우리 상황에 맞는 창립 감사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주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27)
- 예배 후에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부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1시 30분, 청년부실).
- 공동체 인도자 성경공부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1시 35분, 느헤미야 실)
- 예배 후에 당회원, 안수 집사, 성전 이전 자문 위원 연석회의가 있습니다(1시 30분, 느헤미야 실).
-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의미 있는 창립 주일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회원들에게 미리 연락하기 바랍니다.
- 금요 저녁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교회 옆 아파트 주차장은 북 노회 측에서 허락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J u n e

교회사역일지
 6월 13일(주일) 전도주일
 6월 27일(주일) 성찬주일
 6월 30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기도순서

6월 6일 (주일) 이정인 집사
 6월 9일 (수) 이애란 권사
 6월 13일 (주일) 현석호 장로
 6월 16 (수) 이옥화 집사

6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이창운, 문지현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늘
 기도와
 말씀
 으로
 발췌본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기도 7: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22호 2021.05.30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인도자
✳찬송	-----	다함께
✳찬송	-----	다함께
✳찬송	-----	다함께
✳신앙고백	-----	다함께
찬송	-----	다함께
대표기도	-----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	인도자
찬양대찬양	-----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	이태한 목사
찬송	-----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	다함께
✳응답송	-----	다함께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중앙 아시아 K국 강 나하르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동역자님께,

이곳은 벌써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36도, 37도였다가 오늘과 내일 39도라고 더위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오면 더 더워집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사한 집 적응: 이사한 집은 이전 집과 달리 바퀴벌레도 없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도 없습니다. 집 주인도 좋습니다. 그런데 집이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위치라 많이 덥습니다. 학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집에 가면 사우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주 등록, 집 수리 보수를 기꺼이 해 주는 집 주인이라 이 뜨거운 집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 얼마 전 한 교회 청년부에서 짧은 영상을 요청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오래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감사했습니다.

러시아 백신: 지난주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 백신 접종을 위한 등록을 하고(영주권자 가능, 무료) 병원을 선택을 한 후 연락을 기다렸는데 이번 주에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 후 알레르기가 더 심해지고 몸에 힘이 없었는데 하루 푹 자고 알레르기 약을 다시 먹으면서 괜찮아졌습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가 서로를 압니다(요 10:14). 주님께서 저를 잘 아시는데 저는 주님을 얼마나 알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을 구하고 행하고 싶습니다.

기도제목

1. 집이 많이 더운데 특별히 여름에 건강관리를 잘 하고 체력을 기르도록
2.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이기중 권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5:17-22
설	봉	Sermon	자신을 대하는 태도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314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5월 23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창세기 21:8-21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난 이삭으로 인해 웃음이 찾아왔으나 이 웃음을 비웃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났습니다.

1) 이스마엘과 이삭의 긴장관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9): '놀림'은 '비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웃었습니다(막 15:19). 예수님이 당한 조롱과 비웃음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또 우리와 세상 사이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사라는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냄으로 이 긴장을 해소하려 했습니다(10). 이스마엘이 동생을 비웃은 것을 개역 성경에는 "희롱하다"로 번역되었듯 이는 성적 희롱이었습니다. 사라는 이 희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성을 닮은 것을 직감하는 영적 통찰력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냄으로 죄의 싹을 분리한 것입니다. 기업을 함께 언지 못할 자를(갈 4:28-30) 쫓아낸 그 기업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와 말씀의 소유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고전 15:10)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2)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12):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약속의 자녀를 위협하는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갈 5:24). 세상도 품고 예수님도 따르는 삶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자녀를 떠나보내 본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광야로 떠나보냈고 이삭은 제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떠나보냈을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떠나보낼 때에도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해결자이시기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고전 10:13).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망설이지 않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14). 영원한 웃음을 되찾아 주실 예수님을 세상에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3) 이스마엘마저 불드시는 하나님의 긍휼(18): 광야로 쫓겨난 하갈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사 15:49).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오히려 쫓겨난 것이 축복이 되었듯 고통스러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을 때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19). 하나님을 만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샘물을 마셨을 때 삶이 바뀌게 되어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닌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생명의 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음껏 경험하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상에 제시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에 근거하여 단호히 거절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3. 팬데믹에 맞는 선교 정책이 개발되어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